

주 예수 안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전서-

신명기4:5-9, 데살로니가전서4:1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어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릴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해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장군의 이복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사도 바울팀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쫓겨난 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 설립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그때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교회는 사도 바울이 머문 지단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 명의 제자가 지교회의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 제자의 이름은 야손이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조급하게 기다릴 정도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장점은 칭찬하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갱신시켜주기 위해서 디모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내었던 것이다.

1. 첫 번째로 절대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절대목표를 말씀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들과 자신의 장점들에 더욱 힘써서 서밋에 이를 때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후대들은 가능한 빨리 그들의 장점과 달란트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상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기능서밋, 문화서밋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영적서밋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응답받게 된다.

(1)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즉,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실천을 했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되길 기도한다.

(2)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도 오직 말씀만 붙잡고 기쁨으로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올인했던 성도들이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 가지 많은 환란 중에서도 성령충만하고 기뻐하고,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 하는데 힘썼다.

(3) 데살로니가교회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절대목표가 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교회는 교회별관 전체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교회는 지역사회의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과 국가에서도 인정 받게되고 복지와 상담과 치유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들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RUTC이다.

(4) 데살로니가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이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응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달라졌네.’ 할 정도로 믿음의 소문이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5)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6) 그들은 강단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2장 13절 말씀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강단메시지를 묵상하며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지금 현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절대목표들이다.

2.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절대갱신을 위한 미션들이다.

(1)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미션을 주고 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신앙적인 핍박과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락방과 지교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어떤 환란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디모테, 야손이 이 역할을 했던 것이다.

(2) 데살로니가전서 4 장 3 절에서 8 절에서는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음란, 정욕, 중독, 세상문화 등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끊고, 버리고, 잊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것들이 영적인 성장에 울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은 반성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3) 손으로 일하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1 절에서 12 절 말씀을 보겠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 장 12 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라는 뜻을 다른 번역성경인 바른성경에서는 ‘외부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표준새번역에는 ‘바깥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공동번역에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야 한다고 번역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임박한 종말 사상에 빠져서 직장을 관두고, 일을 안 하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4)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에 대하여 잘 이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시대시대마다 주님의 재림신앙을 잘못 알아서 전도를 방해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인류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등에 대한 교리를 악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호와증인들과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4 절에서 17 절의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언약하셨지만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5)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 장 8 절에서 22 절까지 19 가지 절대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목록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영적인 규례와 삶의 규례들이다. 5 장 7 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복음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까 삶의 규모에서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 엘리트, 서밋의 자세이다.

① 5 장 8 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말한다. 세상에서 살다보면 불신앙의 화살이 박힐 때가 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화살이 박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②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5 장 11 절에 ‘피차 권면하고’ ④ ‘서로 덕을 세우라’

⑤ 5 장 12 절에서 13 절에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를 알고 가장 귀히 여기라’ 목회자를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⑥ 5 장 17 절에서 18 절이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음으로 5 장 14 절부터 22 절에서는 7 번째에서 19 번째까지의 실천목록을 말씀하고 있다.

⑦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⑧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⑨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며’

⑩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⑪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⑫ ‘항상 선을 따르라’

⑬ ‘항상 기뻐하라’ ⑭ ‘쉬지 말고 기도하라’ ⑮ ‘범사에 감사하라’ ⑯ ‘성령을 소멸치 말며’ 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⑱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⑲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5장 24절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결론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 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 장 9 절에서 10 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신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의 장점을 키워주고 단점을 고치는데 더욱 힘쓰는 것이다. 갱신할 부분도 있다.

3. Dream, 꿈이다. 24 시간 전도와 공부와 일을 위해 더욱 힘쓰시기 바란다. 꿈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누려지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1, 3, 8 안에서 미리보고, 찾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나와 가족, 후대, 사역하는 사람들의 장단점을 기록하여서 장점을 키워주고 단점을 갱신하는 일에 더욱 힘써보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시대 살릴 교회로,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야손과 같은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